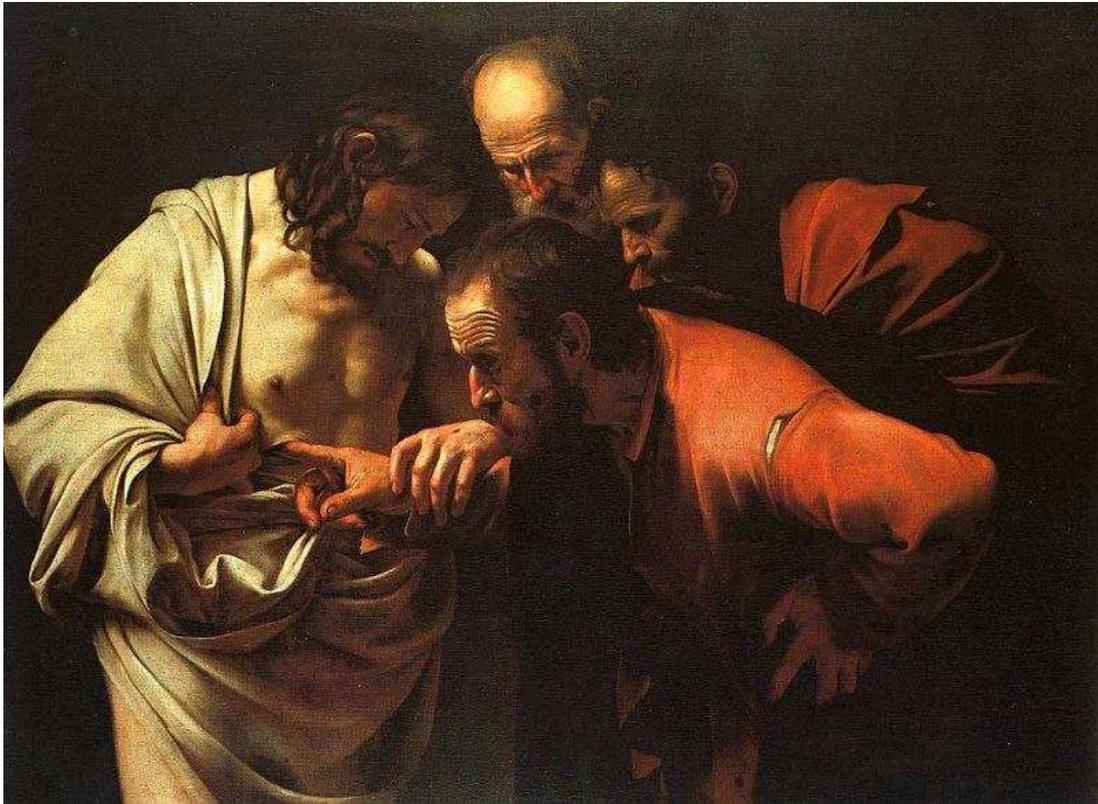


만남

2024년 04월
통권 23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성 토마스의 의심>(1601-1602), 카라바조
독일 포츠담 신궁전(Sanssouci Palace) 갤러리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신앙 나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4
전례 특특		7
영적 상담		10
우리 시대의 성인들		12
축일을 축하합니다		15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16
공동체 소식		17
활동단체 모임 안내		18
월중 행사표		19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0
미사안내		21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세계 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의 존엄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그리스도의 향기 (최영숙 데레사)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코린 2.15)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더 사랑하신 하느님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아드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파스카 신비를 주시어
최 많은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었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평화를 주시며
예수님십자가에 봉헌된 우리사랑과 용서의 제물들도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이겠네!

신비의 구슬들이 목주기도로 장미꽃 동산을 이루어
성령의 바람결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고 가니
따스한 봄바람이 믿는 이의 신심을 더 새롭게 하고
향긋한 꽃바람이 하느님사랑으로 가득히 안겨주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머물기를
이웃의 사랑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보듬어지기를
세상의 평화가 만방에 주님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말씀과 성찬이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라네!

함께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만나는 순간마다 평화인사와 사랑이야기 나누면서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친교에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길 기도드리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루카 24,35-4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평화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희망의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 과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의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답을 달라고, 보채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수차례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확신했던 분이 나타나 말을 걸어왔으니 놀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꾸짖기는커녕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상처를 보여주시며 음식까지 먹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설명보다 더 힘 있게 제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에게서 이 사랑을 먼저 느꼈습니다. 애정을 확인받자 곧바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주신 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부활특집] 부활과 관련된 상식들

부활 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이다. 주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활 8일 축제, 부활삼종기도 등 부활 시기만의 특징들이 있다. 가톨릭교회가 부활 시기를 특별하게 지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부활 시기의 특징들과 예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1. 부활 8일 축제, 부활삼종기도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은 주님 부활 대축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 시기의 첫 8일 동안을 축제로 지내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신앙인들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부활 8일 축제의 기원은 파스카 성야 때 전통적으로 이뤄지는 세례식에서 새 영세자들은 흰 옷을 입었고 교우들도 영세자들과 함께 새 옷을 입고 세례 서약 갱신을 하면서 세례의 은총에 감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주님 부활 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한 주간을 자신들의 축제 기간으로 여기던 전통에서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부활 8일 축제가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활 8일 축제 전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삼덕으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부활 시기 특징 가운데 ‘부활삼종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부활삼종기도는 부활 시기인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바친다. 부활삼종기도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세상을 기쁘게 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2. 엠마오는 어디인가

주님 부활과 관련해 신약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라는 지명은 신자들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유다 지방의 한 시골 마을 이름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엠마오는 신약성경 루카복음 24장 13절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는 구절에서 등장한다. 예순 스타디온은 약 11km에 해당한다.

엠마오에 관한 이야기는 루카복음 24장 13~35절에도 나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클레오파스와 다른 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뒤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라고 말한다.

엠마오에 대해 오늘날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루카복음에 전하는 내용뿐이다. 교회사 전승에 의해 엠마오로 추정되는 장소는 네 군데가 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33km 떨어진 암바스, 역시 예루살렘 서쪽으로 대략 15km 떨어진 시골 마을 아부 고쉬, 예루살렘 서쪽 약 6km 떨어진 칼로니에,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엘쿠베베이다. 1901년 프란치스코회가 엘쿠베베에 기념성당을 세우면서 엘쿠베베가 공인된 엠마오로 정착된 측면이 있지만 반론도 제기된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클레오파스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엠마오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함께 그곳으로 동행했던 상징적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귀스타브 도레
‘엠마오로 가는 길’(1891).

3. 예수 부활의 증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부활은 신앙의 본질이지 과학적,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연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졸도했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수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 4복음서에는 세부적인 표현이나 묘사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수 부활을 풍부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4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 다음날 아침, 예수가 묻혔던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됐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와 얼굴 수건은 무덤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4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 부활의 더 뚜렷한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합의 없이 예수 부활을 기록했기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에서는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활동과 교회의 역사성이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의 역사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빈 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에 머물러 있다”(647항)고 밝힌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신앙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한다.



질문

Q. 대모님과 관계 때문에 고민입니다. 대모님은 아주 조용하시고 늘 성당에서 기도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셔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대모님으로 모셨는데, 날이 갈수록 대모님과 사사건건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놀기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영화와 연극이 있으면 보러 다닙니다. 대모님께서서는 그런 저에게 세속적이라고 일침을 가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찢려서 온종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대모님은 다시 저에게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고 하셔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면 마귀가 들렸다고 하십니다. 정말 마귀가 들린 건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신앙적인 면이건 일상적인 면에서건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그리고 자신도 편안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은 불편하다면 ‘병적인 콤플렉스’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성격 장애’,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한다면 ‘신경증 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모님이 자매님의 삶을 세속적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게 영적으로 민감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신경증 증세’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는 데 지나친 민감성을 보입니다. 기도와 성당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선 세속적이라고 단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행사할 때도 늘 못마땅하게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확신할지 모르나 자칫 세상의 모든 일을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상태가 분열증 초기일지도 모르니 조심할 일입니다.

또한, 이런 성향의 분들은 ‘종교적 자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방주 콤플렉스’라는 증상인데 자신이 경험한 세상, 자신이 깨달은 것이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얼핏 보기에 신념과 신앙심이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에 도취하고 자기가 만든 신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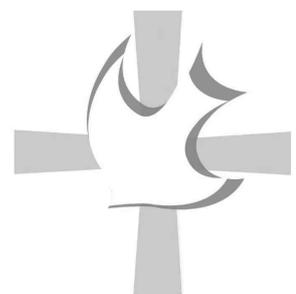
빠진 심리적 이상승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의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하느님을 섬기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 있지만, 인간 삶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만 빠져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영적인 세계에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이 늘 하느님만 향할 수는 없고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을 늘 견고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반듯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면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욕망에 충실하고 약간은 흐트러짐이 있을 때 가장 사람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흔히 지진에 대비해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되지요. 지진이 심한 곳에서는 건물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짓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진 설계는 약간 흔들리게 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허술함이나 흔들림이 있어야 오히려 신앙인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가끔 빈틈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하면 숨이 막힐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 같아서 말이지요. 완전함을 지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삶’이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 성인들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우리 시대의 성인들 -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1887~1968), 축일 9월 23일

‘오상(五傷)의 비오’ 혹은 ‘파드레 비오’로 잘 알려진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는 이탈리아 카푸친 작은형제회 수도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오상을 지녀 유명해졌지만,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는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었다. 1971년 카푸친 작은형제회 장상과의 만남에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비오 신부가 명성을 얻고 신자들이 주위로 몰려든 이유는 겸손하게 미사를 봉헌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해소에 머물며 고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생을 예수님 오상의 고통을 견디며 기도했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의 삶을 알아본다.

■ “수염 있는 수도자가 되고 싶어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의 속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시오네(Francesco Forgione)다. 프란체스코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그라치오와 어머니 마리아 주세파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지만 자녀들과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밤에는 묵주기도를 바쳤다. 부모는 글을 몰랐지만 성경을 외울 정도로 신심이 두터웠고, 자녀들에게 자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프란체스코는 어릴 적부터 신심이 깊었다. 성가 부르기나 ‘미사 놀이’를 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열 살 즈음부터 사제의 꿈을 키웠다. 당시 구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던 한 카푸친 작은형제회 수도자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발견했고, 아버지에게 “수염 있는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처음에 그의 부모는 반대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공립학교를 3년 밖에 다니지 못했다. 이 정도 교육만으로 카푸친 사제가 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 그라치오는 아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남미와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프란체스코는 1899년 첫영성체를 하고 견진성사를 받았다. 그리고 과외 수업을 통해 수도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지식을 쌓았다.

1903년 프란체스코는 모르코네에 있는 카푸친 수련소에 들어갔다. 그해

1월 22일 착복식을 하며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1905년 유기서원을 한 뒤, 여러 지역의 수도원을 거치며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1907년 종신서원을 했다. 이후 신학 공부에 전념했으며, 23살이던 1910년 8월 10일 사제품을 받았다.

비오 신부는 피에트렐치나에 있는 천사의 모후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비오 신부는 상태 악화로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에트렐치나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6년을 머물러야 했다. 그는 고열 외에도 천식성 기관지염을 앓았으며,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1916년 비오 신부는 이탈리아 포르지아주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은총의 성모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잠시 동안 했던 군복무 생활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이 수도원에서 지내며 소신학교 학생들 영적 지도자와 고해사제로 활동했다.

■ 예수님의 오상

비오 신부에게 예수님의 오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사제품을 받은 후 1년 정도 지난 1911년 9월 7일이었다. 두 손에 작은 동전만한 크기로 빨간색 상처가 나타났다. 너무 아팠고, 특히 왼손의 통증이 더 컸다. 1915년부터는 상처가 더 두드러졌다. 비오 신부는 주님께 이 상처들을 없애 달라고 기도했고, 얼마 동안 사라졌다. 하지만 1918년 9월 20일 다시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오상이 찍혔다. 상처에서는 피가 났고,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더 심해졌다. 이후 비오 신부는 아물지도 덧나지도 않는 오상의 고통을 50년 동안 겪게 됐다.

비오 신부가 오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산 조반니 로톤도의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중에는 비오 신부의 오상을 살피려 드는 의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비오 신부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은 조사관들도 있었다. 비오 신부를 떠받드는 광신자들의 행동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한 조사관은 비오 신부가 교황청의 허가증이 없으면 상처를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비오 신부는 사람들의 맹신을 이용하는 무식하고 자학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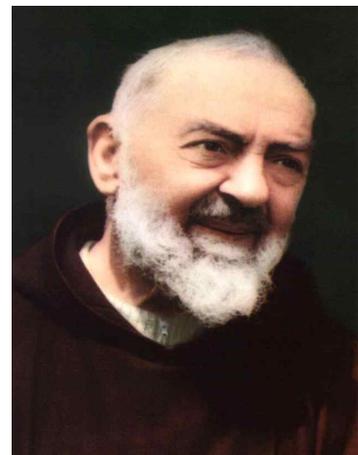
비오 신부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교황청에 제출됐다. 교황청은 1931년 5월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와 신자들과의 미사 집전을 금지시켰다. 비오 신부는 거짓 고소와 진실 왜곡, 부당한 사목활동 규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 모든 조치를 따랐다. 비오 신부는 모든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교회와 장상들 명령에 끝까지 순명했다.

비오 신부에 대한 제재는 1933년과 1935년 사이에 모두 해제됐다. 비오 신부는 오해가 풀리기까지 3년 동안 격리된 상태로 미사와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비오 신부는 생애 대부분을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보내며 기도와 미사, 고해성사에 온전히 헌신했다. 성인은 “우리는 책 속에서 하느님을 찾지만,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며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인은 미사에 참례한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고해성사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때로는 거칠게 대하면서까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1956년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1960년대, 비오 신부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돼 갔다. 1968년 9월 22일 그는 건강 악화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이 오상을 받은 지 50년을 기념하는 장엄미사를 주례했다. 이 미사는 비오 신부가 주례한 마지막 미사였다. 이튿날 새벽, 비오 신부는 고해성사를 받고 서원을 갱신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받았다. 새벽 2시30분경 “두 명의 어머니를 뵙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했다. 두 명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모와 성모 마리아였다.

선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오 신부의 시복시성 운동이 시작됐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9년 그를 시복하고 2002년 6월 16일 시성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로마 유학시절인 1948년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비오 신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비오 신부의 시성식 강론에서 “비오 신부는 모두를 환대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며, 특히 고해성사 집전을 통해 주님의 자비를 전했다”면서 “사제들이 그를 모범으로 삼아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고해성사의 기쁨과 고해성사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
CNS 자료사진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황혜인	16일	벨라뎃다	강신자, 최성자, 오옥수
20일	아녜스	민보경	22일	테오도로	남태오
24일	알렉산델	이규민	24일	보나	현정민
25일	마르코	강석진, 김성운	29일	카롤리나	김계희
29일	안토니아	김현지	29일	카타리나	이화자
30일	소피아	이다원			

❖ 4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1일	젬마	김선주(H)	29일	카타리나	이민영(B)
-----	----	--------	-----	------	--------

❖ 4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134	220	179	130
14일	138	215	166	129
21일	55	332	182	134
28일	138	340	163	131

❖ 4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자	복사	커피봉사
7일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치수(도미니코) 김영희(클라우디아)	최승진 (바오로)	박노아(노아) 이동윤(엘리아스)	3구역
14일	요셉마리아회		박종래 (바오로)	박요나(요나) 이동빈(루카스)	4구역
21일	비르지타회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박종래 (바오로)	추이솔(빈첸시오) 김종호(야고보)	1구역
28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신유경 (율리아)	박노아(노아) 박요나(요나)	요셉 마리아회

♥ 3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교구 계좌 입금(25)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욱, 백정선, 최화영, 이공중,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신유경, 손수희, 배성우, 김선애, 강일남, 김진호, 김민옥, 윤석순, 송문규, 송욱자, 옥수 Ranitzsch, 김원자, 이석우, 권지연, 최성자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자진헌납금(6)

이정수, 최순남, 이종하, 이경란, 조영희, 이현묵

❁ 공동체 계좌 입금(7)

정정숙, 이성원, 강신행, 영희 Eggerstedt, 이경규, 이호준, 박경원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4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7.339,74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 Hamburg 공동체 소식

1. 4월 7일 주일미사 후 구역반장 월례회가 있습니다.
2. 4월 9일 저녁미사 후 믿음의 샘 꾸리아가 있습니다.
3. 4월 12일 16시 2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4. 4월 14일 주일미사 후 비르지타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5. 4월 21일 14시에 성가정 학교가 있고, 주일미사 후 요셉마리아회, 청년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6. 4월 24일 12시에 연령회 월례회가 올스도르프 묘원에서 있습니다.
7. 4월 28일 주일미사 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4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6일 브레멘, 13일 오스나브뤼크, 20일 하노버



사 목 협 의 회	매일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올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성 가 정 학 교	매일 셋째 주일 14시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일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11월 - 3월 주일 13시30분 ~ 14시30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일 둘째 화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황혜인(올리아)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허길조(안드레아스)		
		총무	심선옥(도미니카)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올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4 월 행사 표

2024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전례일	행사	비고
1	월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순교자 윤봉문 요셉 치명일(1888년)		
2	화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3	수	부활 팔일 축제 수요일		
4	목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이승홍 신부 청명
5	금	부활 팔일 축제 금요일		식목일한식
6	토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		
7	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보건의원 날
8	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9	화		꾸리아	
10	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11	목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2	금		2구역 소공동체 모임	금육
13	토		오스나브뤼크	
14	일	부활 제3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15	월			故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8주기
16	화			
17	수			
18	목			
19	금			곡우. 금육
20	토		하노버	장애인의 날
21	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성가정 학교 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김용호, 이동진, 유청 신부
22	월			
23	화			
24	수		연령회 월례회	
25	목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정영규, 임상엽, 정흥식, 최문성 신부 법의 날
26	금			허기원 신부 금육
27	토			
28	일	부활 제5주일	사목회	
29	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화			김유태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공동체 주임신부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2. Etage)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 장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0 410978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Antonius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